

“새로운 숲을 만나다” 시리즈

스위스 취리히의 도시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원장 배상원

일본 스위스 동북부에 위치한 취리히 시는 인구 40만명, 면적 88km²의 취리히 호수의 북쪽 끝 해발 408m에 자리를 잡고 있는 스위스에서 가장 큰 도시다. 알비스산의 울창한 숲이 있으며, 이 지역에 취리히에서 가장 높은 위틀리산(Uetliberg, 869m)이 있다. 취리히의 숲면적은 2,225ha로 취리히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1,428ha가 사유림으로 전체 산림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취리히 도시 숲은 도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에 남북으로 길게 연결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취리히 호수가 위치하고 있다.



사진2 = 줄기가 곧게 자란 너도밤나무 숲

시유림은 위틀리산 산림경영구역(565ha)과 북부산림경영 구역(863ha) 2개 산림구역으로 경영 및 관리가 되고 있다. 취리히 숲은 해발 400 ~ 869m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너도밤나무, 너도밤나무 혼효림, 활엽수혼효림(단풍나무 물푸레나무 너도밤나무 혼효림, 단풍나무 물푸레나무 혼효림), 소나무 너도밤나무 혼효림이 주를 이루고 가문비나무와 전나무가 해발이 높은 곳에 자라고 있다. 취리히 시유림은 휴양림의 기능이 주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항속림 경영으로 6년 주기로 무육 수확을 하고 있는 경제림이기도 하다.

취리히 도시 숲은 도시 특성에 맞춰 휴양 기능을 최우선 목표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km가 넘는 산책로와 자전거길, 체력단련장 등 다양한 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숲을 배치하고 있다. 숲 배치의 경우 동일한 구조의 숲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어린 나무 숲, 큰 나무숲, 노거수 등을 변화 있게 배치하여 모자이크 형

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숲 중 시내에서 가까운 실발트(Sihlwald)와 아드리스산(Adlisberg) 지역의 숲이 있다. 취리히시 중심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실발트는 수백 년 동안 목재 공급원으로 주로 이용하였지만, 현재는 도심에서 가깝고 공공 교통을 이용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취리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숲이다.

실발트의 기능이 휴양 및 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숲의 일부를 자연 상태로 되돌리는 원시림프로젝트가 시작되어 벌채를 실시하지 않으며, 부러진 나무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실발트는 스위스 중부지역 최대의 활엽수혼효림으로 다양한 활엽수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너도밤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너도밤나무 줄기는 곧고 매끄럽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너도밤나무 숲에 들어서면 마치 대리석 기둥에 둘러싸인 듯하다.

실발트에는 취리히 공과대학(ETH) 임학과에서 설치한 시험지가 많아 다양한 숲과 후계림으로 조성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취리히 시내 동쪽에 위치한 아드리스산쪽 숲으로 들어가면 샘터, 그릴장소, 산막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어 이 숲이 시민들이 많은 찾는 휴양림임을 알 수 있다. 산책로에 칩과 톱밥을 깔아서 산책객들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게 달리기 등을 할 수 있고 간단한 철봉 등 간단한 운동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어 숲에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운동을 취리히에서는 Vitaparcours라고 한다. 울창한 활엽수 숲을 지나다 보면 굽기가 한 아름다워 되고 하늘을 찌를 듯이 자라고 있는 독일가문비 숲이 나타나는데 독일가문비나무 숲 앞쪽은 수확을 하고 그 자리에 울타리를 치고 참나무를 식재를 한 모습이 보인다. 이는 굽기가 한 아름다워 넘으며, 수고가 30m가 되는 커다란 독일가문비나무를 소면적 수확하고 생긴 빈자리에 참나무를 조림을 하여 참나무 숲을 확대하고 울타리를 설치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아드리스 산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임도변에 두 사람

이 두 팔로 껴안아도 모자랄 정도로 큰 참나무(*sessile oak*, *Quercus petraea*) 줄지어 자라고 있다. 물푸레나무도 거의 같은 크기로 자라고 있는데 수령이 100~200년 정도되는 노령목으로 보이며, 중층의 나무들이 참나무 줄기를 보호해서 통직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은 참나무 숲 관리의 좋은 사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참나무 숲에서 아드리스산 쪽 동쪽 언덕 꼭대기로 가다 보면 해발 690m의 루렌코프(Loorenkopf)에 전망대가 있다. 루렌코프 전망대 높이는 33.3m로 30m 높이에 전망 플랫폼이 있는데 전망대에서는 취리히 호수, 알프스 등 전경을 볼 수 있으며, 커다란 전나무, 너도밤나무의 수관이 바로 눈앞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취리히 호반에 자리 잡은 도시가 한 눈에 보이며 건물들이 수변까지 줄지어 서 있고 그 뒤로 연초록 초지와 짙은 초록 숲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은 도시와 호수가 숲에 둘러싸인 자연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멀리 산 뒤로 보이는 알프스 산들은 이곳이 알프스와 멀지 않은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3 = 너도밤나무 산벌 갱신시험지







산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전나무나 가문비나무는 사라지고 활엽수들이 숲을 이루고 있다. 이중 커다란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곳은 항속림 경영을 하여서인지 커다란 나무들이 단목으로 수확이 되어 커다란 그루터기 등 성듬성 보이고 빈 공간에 크고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 특히 햇빛이 드는 숲 바닥에는 어린 활엽수 치수들이 자라고 중간층에 너도밤나무, 단풍나무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위쪽에는 커다란 너도밤나무, 물푸레나무 등이 자라고 있어 숲이 초록색으로 가득 차 있다.

취리스 도시숲에는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시설이 있고 다양한 숲을 대상으로 합자연적 산림경영으로 숲이 유지된다. 이를 통해 산림의 휴양기능이 지속되게 하여 목재이용과 휴양이 공조하는 숲이 있는가 하면 자연에 중심을 두어 벌채를 통한 목재 생산은 포기하고 원시림으로 되돌리는 것은 도시숲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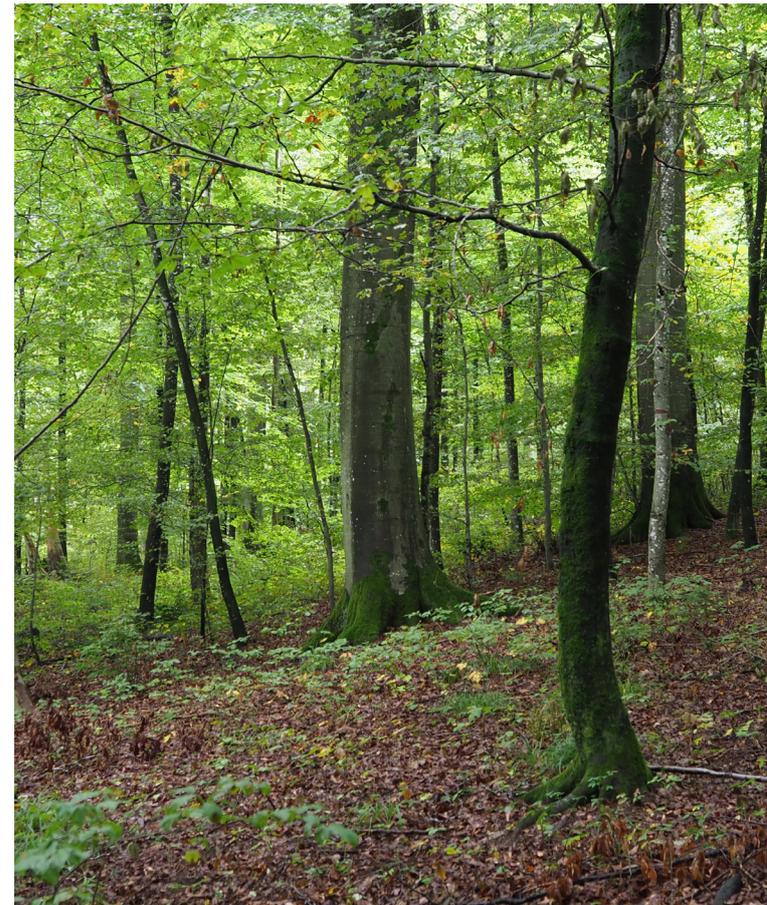


사진5 = 참나무 노령숲
사진6 = 호수와 취리히 시내 전경
사진7 = 너도밤나무 활엽수 혼효림